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반기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고창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은 하반기에 전기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2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규모별로 14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 일까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창군에 거주한 개인 및 법인·단체로서, 2년 이내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륜차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신청하면 해당 판매점에서 보조금 접수 및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준다.

고창군 관계자는 “내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 신규 홈페이지 기념 이벤트

고창군이 ‘사이버 고창군민’ 신규 홈페이지 개설 기념으로 오는 20일까지 2주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이버고창군민이 되고싶은 누구나 간편하게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군민증 발급 후 이벤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LET'S 사이버고창군민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해 개인 SNS에 흥보 후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비일상품권을 선물 계획이다.

사이버고창군민 제안평광 이벤트는 제도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작성하면 요건을 갖추면 선정을 통해 100명에게 모비일상품권을 선물할 계획이다.

사이버고창군민이 되면 힐링카운티 약 25%, 석정휴스파 25%, 동호국민여가캠핑장 20%, 토굴발효(복분자 코디얼, 고주장단들기) 체험 10%, 고창읍성파라글리아딩 10% 등이 할인되며 군정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정읍시, 양돈농가 소독 철저·농장 방역수칙 홍보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1월 경기도 포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읍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광역방제기 2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7대 등 소독지원을 적극 동원해 양돈농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 방역실태 관리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감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파의 요인이 되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하고 있다.

주요 대책은 외국 축산물 불법 휴대 및 반입금지, ASF 발생국 방문 금지, 잔반 금지, 유통 등을 설치로 아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 등이다.

시는 광역방제기 2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7대 등 소독지원을 적극 동원해 양돈농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 방역실태 관리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어,

감염될 경우 100%

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파의 요인이 되는

이학수 시장은 “길고양이나 들개, 여우 등 야생동물 접촉을 금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북도 등에서 등산 및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축산농기는 매일 농장 소독과 외부 야생동물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반려동물 놀이터 새단장 ‘큰 호응’

선은리 다목적체육센터 옆… 산책로·쉼터·포토존 등 조성

부안군이 지난 3월 개장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반려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안읍 선은리 다목적체육센터 옆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천연잔디와 메시휀스, 벤치 등을 갖추어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맘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었으나, 개장 이후 약 5개월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변모했다.

우선, 주차장에서 놀이터로 가는 진입로를 기존 흙바닥에서 아자매트와



조약돌이 깔린 고급스러운 산책길로 바꾸고 군데군데 벤치와 조경수를 배치하여 쉴 공간을 추가했다.

놀이터 전면에는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예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조성했으며, 헨스의 빛깔함을 강아지 그림으로 보완하고 출입구 잡금장치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부안군청 축산유통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군은 반려동물 놀이터 옆 부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코스모스 산책로를 조성중이며 이르면 8월중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영상 공모전 시상

총 상금 1500만원, 13개 작품

고창군이 지난 7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공모전은 ‘풍요롭고 친환경 고장을 담다’를 주제로 5~6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제의 적합성, 기획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 결과 총 13편의 영상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드론 부문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고창군(김민종)’이 선정됐다.

우수상 드론 부문으로는 ‘고창 아리랑(박시홍)’, 우수(자유) ‘뿌리 깊은 고창(이한나)’, 장려(드론) ‘GO! GO! 고창(이종열)’, ‘내 마음의 행복 고창(김준태)’, 장려(자유)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만나다(서영원)’, ‘고창,



자연을 숨쉬다(이혜민)’ 등 입선 6편을 포함한 13편이 선정되었으며 총 150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됐다.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고창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NS와 유튜브 등 고창군 흥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영상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에 대해 알았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많은 분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름독서교실은 창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청우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찾아가는 여름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립도서관, 행복에 관한 책 주제로 독후활동 진행

부안군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찾아가는 여름독서교실’을 시작하고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프로그램 일정에 들어갔다.

여름독서교실은 창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청우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총 5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하여 배우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활동들이 이뤄진다.

또한, 이번 독서교실은 ‘행복한 책, 톡톡!!’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데, 회차별로 ‘어서와, 방학!!’, ‘내 작은 정원을 만들자’, ‘집내라 주인공~’, ‘내 기분이 왜 이럴까’, ‘함께, 멋있게!!’ 등의 내용으로 그림책을 읽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가득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경찰서, 흉기난동 범죄 총력 대응

특별치안활동 TF팀 구성·운영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 생활안전교통과(과장 황문주)에서 주관하여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특별치안활동 추진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치안활동 TF팀은 다중밀집지역 대상 범죄예방진단 및 경비원 배치 강화, 현장대응 직원 무기 및 장구 지급, 지역경찰·교통비원 순찰 강화 등 기능별 주요 세부 치안 활동 과제를 설정했다.

정하고, 매일 추진사항을 취합하여 실질적인 치안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단체와의 협업 및 순찰 강화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농기센터, 청년농업인 지원 나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제2 청사에서 분야별 우수청년농업인 9명을 선정해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경작과 성공적인 농업·농촌 적응을 목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총 27회(개인당 3회이상)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 농장에서 1:1 컨설팅을 통한 경영 진단·분석부터 집합 컨설팅까지 일자리 구성됐다.

또한, 컨설팅 전문 강사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체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코칭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농가별 경영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